

2018년도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 (한국·아시아복식)

디지털 인문학과 복식 콘텐츠

金 炫

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

한국학대학원 인문정보학교실

hyeon@aks.ac.kr



이 저작물(PPT)의 인용 표시 방법:

김현, "디지털 인문학과 복식 콘텐츠", 2018년도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,
한국의류학회, 2018. 10. 20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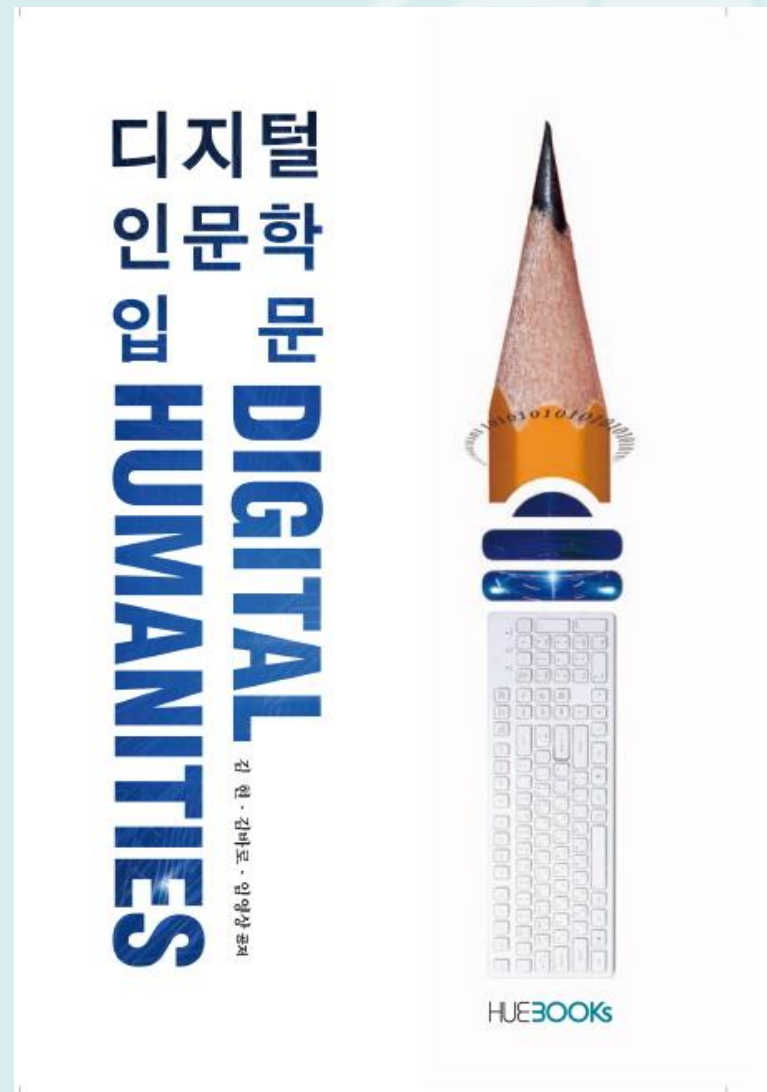
1. '디지털 인문학' 이란?

2. 인문학, 큐레이션, 아카이브

3. 백과사전과 아카이브의 만남

디지털 인문학의 세계는 디지털과 인문학이 만나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곳이다. 그 융합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문학 연구와 인문지식의 교육, 그리고 그 연구와 교육의 성과가 디지털 시대의 우리 사회에서 더욱 가치 있게 활용되도록 하려는 노력을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한다.

(김현, 『디지털 인문학 입문』, 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부, 2016. 5.)



❖ 디지털 인문학의 3가지 키워드

1. 인문학 (연구) 연구 방법의 혁신을 통해 인문학 본연의 학술 연구에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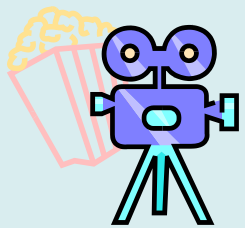
- ✓ 나무만 보는 연구 →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연구
- ✓ 혼자 하는 연구 → 공동으로 하는 연구 → 모든 개별적인 연구가 공동의 성과로 결집되는 연구



2. 인문교육 (교육) 우리의 차세대에게 디지털 문식(Digital Literacy)의 능력을 키워 줄 인문교육 콘텐츠와 교육 방법론 개발



3. 인문콘텐츠 (활용) 인문 지식이 학계의 벽을 넘어서서 대중과 소통하고 창조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 개방



❖ 디지털 인문학 = 현대의 인문학

“디지털 인문학은 모든 인문학이 새롭게 갈아입어야 할 옷과 같은 것이다. 디지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인문학은 더 이상 현대의 학문이라고 할 수 없다. 적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의 인문학자들은 모두 디지털 인문학자일 것이다.” (김현, 디지털 인문학: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, 『인문콘텐츠』 29, 2013. 6.)

❖ 우리가 ‘디지털 인문학’이라는 이름으로 하려는 일

디지털로 표현하고 디지털로 소통하는 이 시대에 인문지식이 더욱 의미 있게 탐구되고 가치있게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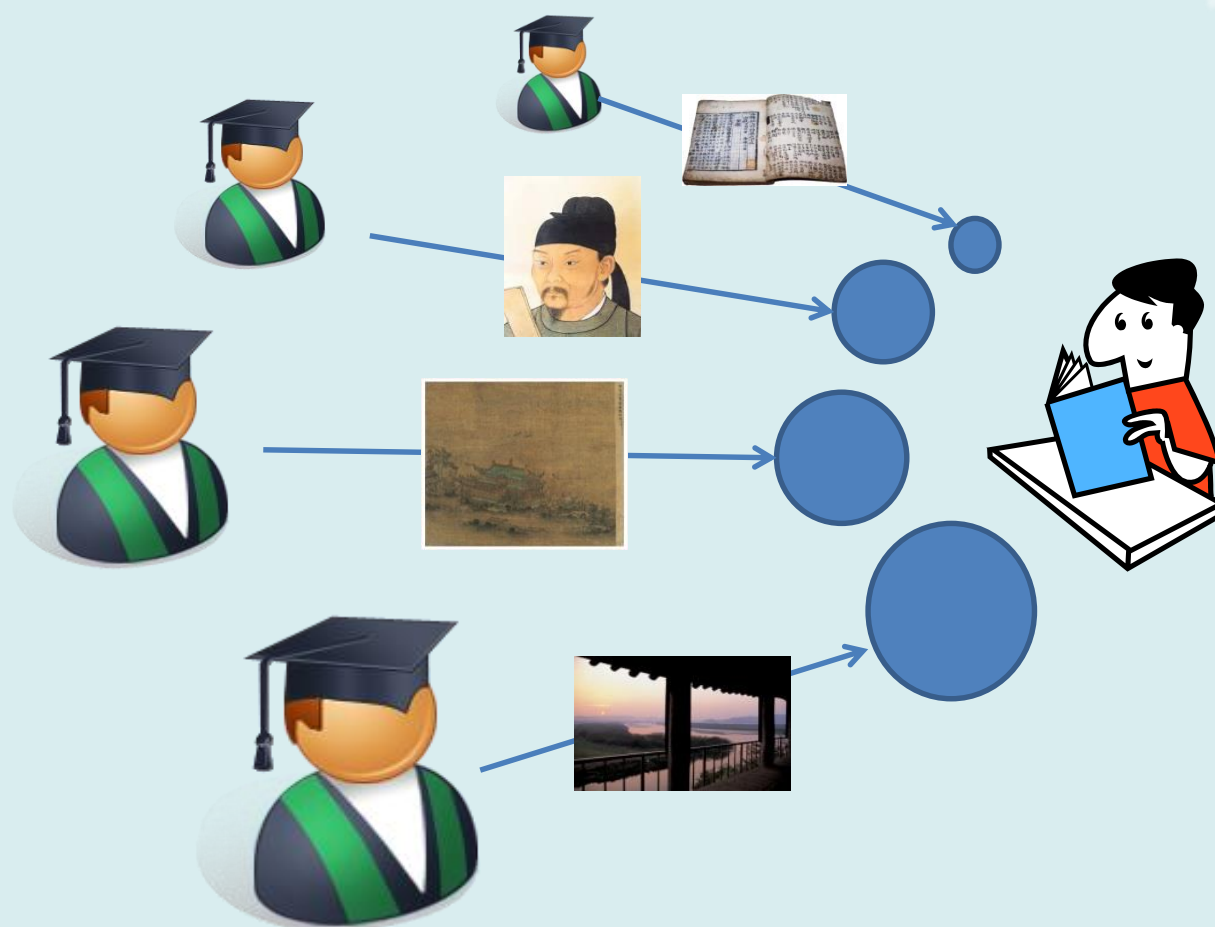


1. '디지털 인문학'이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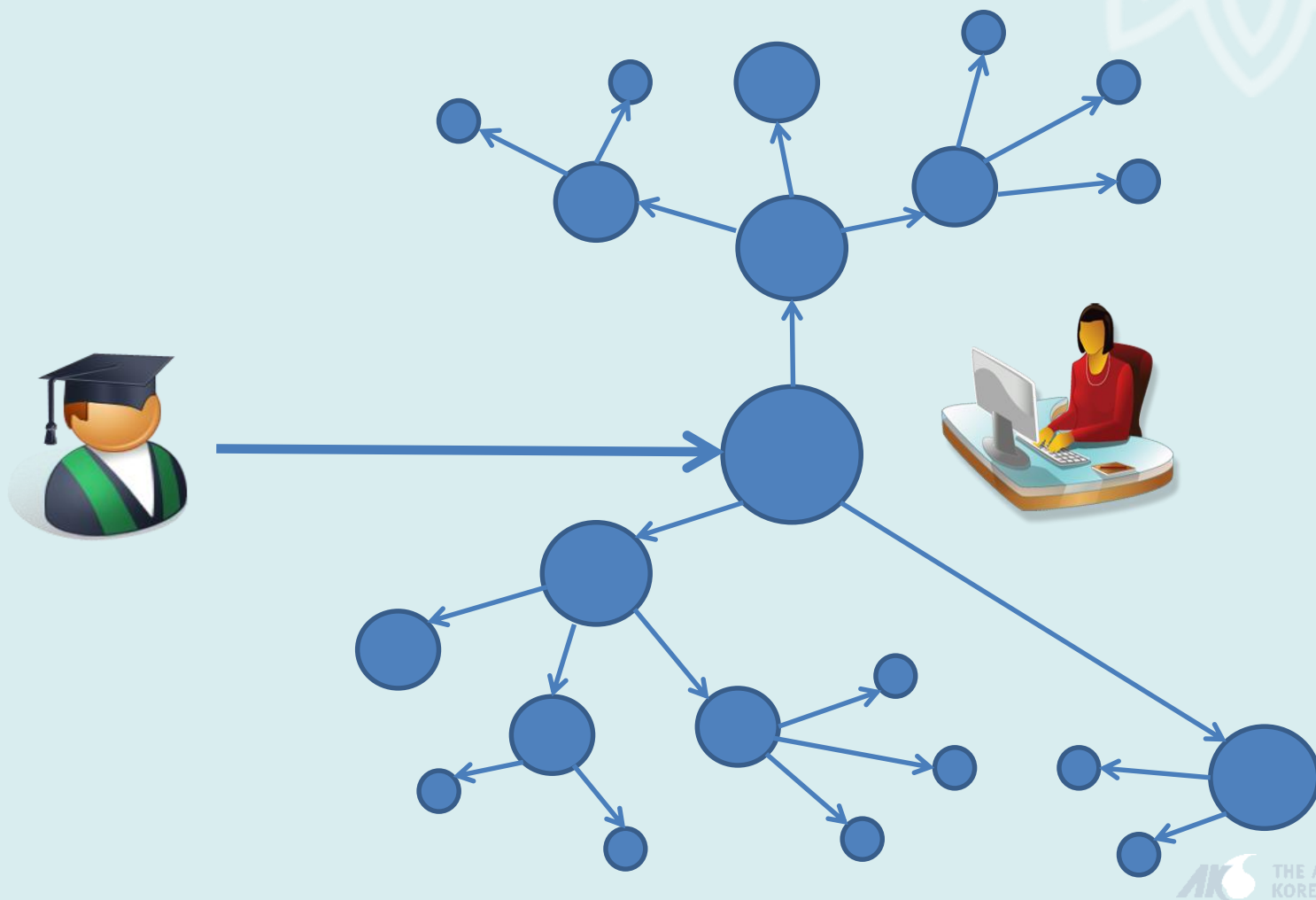
2. 인문학, 큐레이션, 아카이브

3. 백과사전과 아카이브의 만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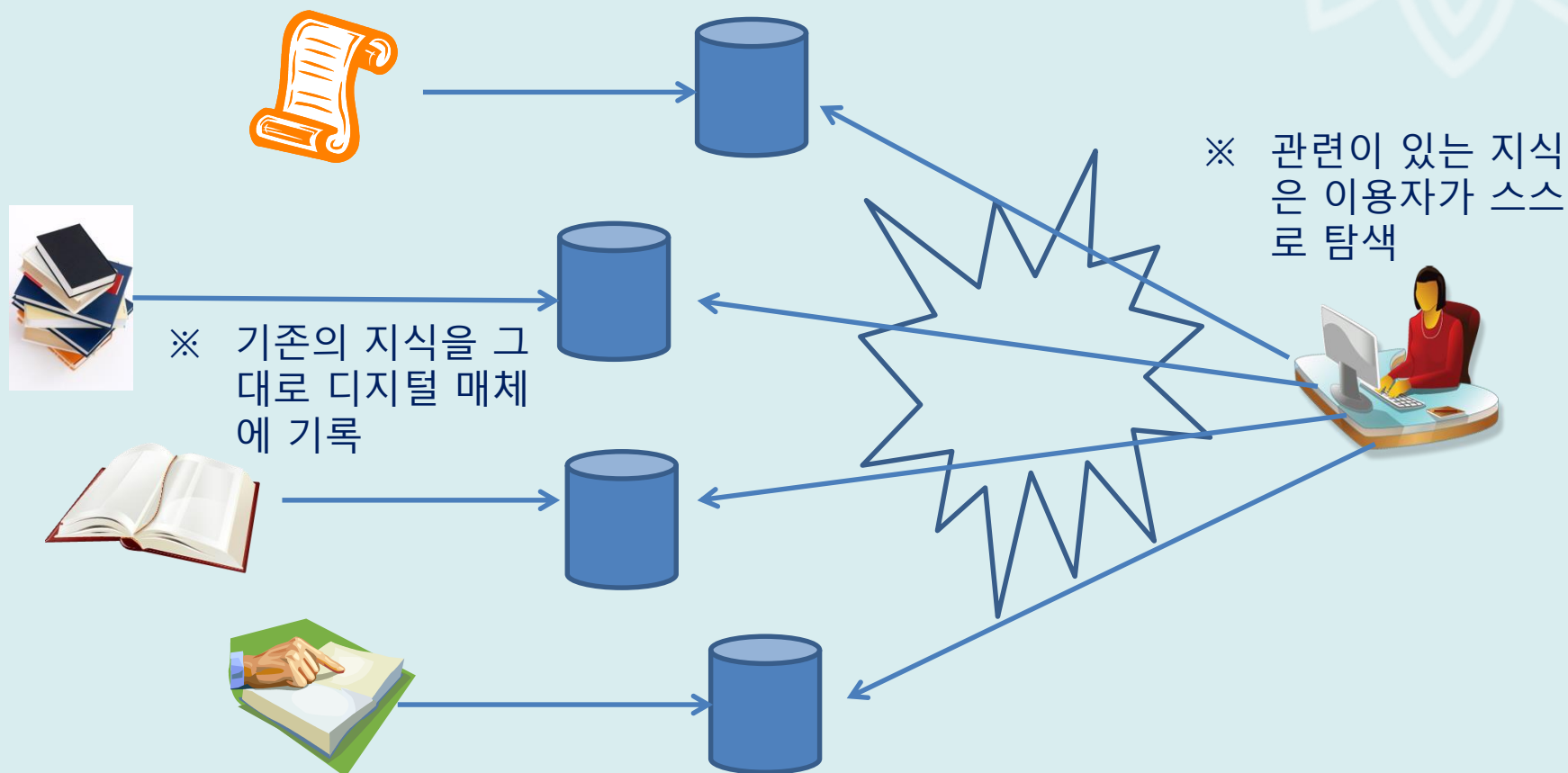
- ❖ 전통시대의 지식 콘텐츠: 각각의 주제(분야, 대상)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기완결적인 저작물



- ❖ 디지털 시대의 지식 콘텐츠: 다른 지식으로 가는 길을 담고 있는 소통의 교점(交點, Node)



❖ 기존의 인문학 자료 정보화: 전통시대의 지식을 그대로 디지털 매체에 수록



昔聞洞庭水
今上岳陽樓
…

“先憂後樂”

“岳陽樓”



❖ 디지털 세계의 인문학과 아카이브

- 디지털 인문학의 세계에서는 인문학 연구실과 아카이브가 별개의 분리된 영역일 수 없다.
- 인문학 연구실인문 지식을 탐구할 때, 그 지식의 근거가 되는 원천 자료를 아카이브에서 바로 참조
- 아카이브 실물 자료 하나 하나에 대해 그것이 역사적, 문화적,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맥 속에서 의미를 갖는 것인지, 인문학 지식과의 연계를 통해 설명
- 이것을 실현하는 융합연구가 디지털 큐레이션
- 그러한 융합연구의 현장이자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체계의 중심이 디지털 아카이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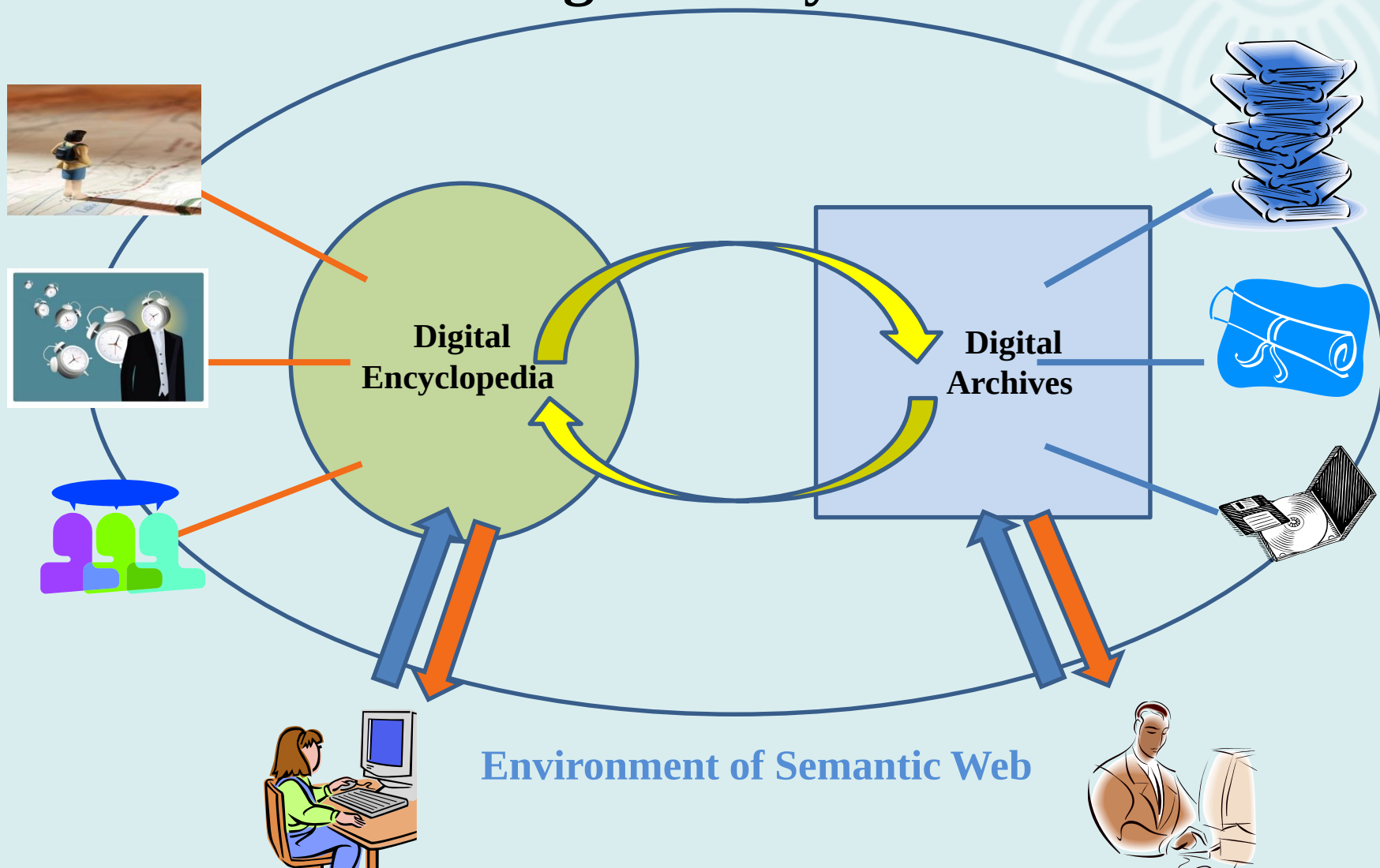


1. '디지털 인문학' 이란?

2. 인문학, 큐레이션, 아카이브

3. 백과사전과 아카이브의 만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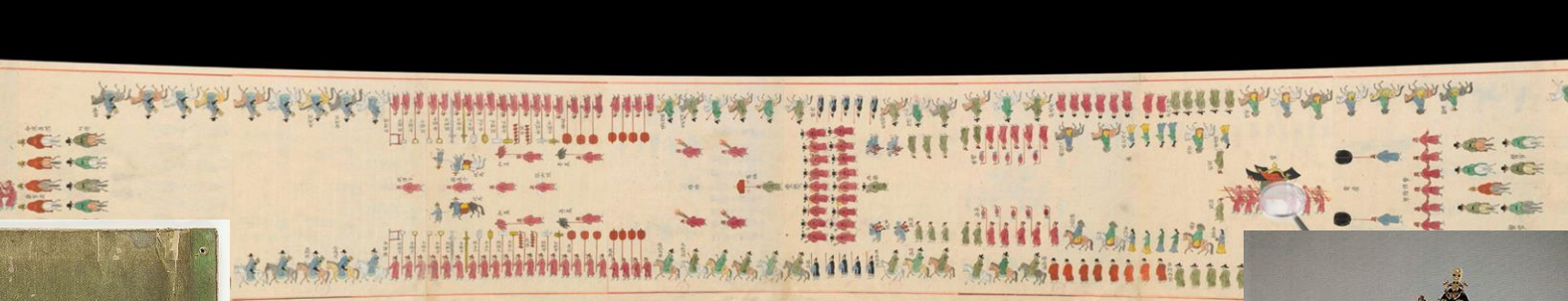
Digital Encyves





❖ 궁중기록화 가상 전시관

- 36 편의 대표적인 궁중기록화를 대상으로 삼아 궁중 의례의 내용과 ,행사에 참여한 인물들이 착용하였던 다양한 복식을 디지털 공간에 재현



영조-정순왕후 친영 반차도

